

미래 보는 경북, APEC·저출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내년 예산안 13조2618억원 편성 당초 대비 6541억원(5.2%) 증액 재정 건전성·효율성 우선 확보 APEC 성공 개최·민자 활성화로 경북 주도 지방시대 실현 꾀함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 261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6078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원(5.5%)이 증가한 11조7267억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67억원(3.1%)이 증가한 1조5351원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경북도는 지속적 성장둔화, 경제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재정혁신과 공격적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최초로 예산 규모 13조원을 돌파하는 성장·발전 기조를 이어갔다. 또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및 3년 이상 지원 지방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성과 기반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했다.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APEC 성공 개최를 통한 경북 위상 강화, 1조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 BBC+E(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도 주요 예산 편성 현황
첫째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경북!!'이란 슬로건으로 순항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저출생 극복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행복출산 사업에 570억원 △안전돌봄사업에 1168억원 △안전심중거사업에 164억원 △그 외 만남지원사업에 4억원, 일생 활균형사업에 37억원, 양성 평등사업에 39억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저출생극복성금을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우리동네아빠교실 등 25개 사업 60억원을 투입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K-한류 문화 우수성 확산,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주가 가진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북의 힘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PEC 정상회담 성공 개최 지원에 885억원을 직접 투자 △외교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추진사업에 1101억원을 투입, 또한 경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APEC 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1744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보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셋째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경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

인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에 집중투자 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토대 마련에 모두 3451억원 투자 △지속 가능한 발전 경북 기반 조성 등에 1조7882억원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 복지 지원에 3조2735억원 △지역외 체질 개선에 1962억원 △소상공인 성장 기반 조성에 369억원 △청년년 공 실현 지원에 665억원 등을 투자한다.
넷째 '경북의 미래성장엔진 BBC+E', '기술주도형 산업대전환' 등 주력 산업 생태계에 전방위적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역주력산업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BBC+E)에 1035억원 △경북 농·축산업 대전환 조기 실현에 1조

1326억원 △산림어업대전환 추진 2786억원 △1조 민간투자펀드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302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저출생과의 전쟁 본격 수행, 성공적인 APEC 개최로 글로벌 경북 브랜드 가치 격상, 1조 마중물 펀드 조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해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지난 8일 경북도 동부청사 건립 이전 기념식에서 이철우 도지사, 박성만 도의장, 임종식 도 교육감, 김정재 국회의원, 동해안권 5개 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 생활공간 품은 '동부청사' 새출발

시험가동 후 건립 이전 기념식 동남권 컨트롤타워 역할 '박차' 해양레저·어촌관광 활성화 '힘'

경북도는 지난 8일 경북도 동부청사(포항시 흥해읍)에서 이철우 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임종식 도 교육감, 김정재 국회의원, 동해안권 5개 시·군 시장·군수, 도·시·군 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부청사는 지난 2021년 1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내부 실내장식 공사와 시험가동 등을 거쳐 7월 입주를 완료했다. 부지면적 3만3000㎡, 건축연면적 1만2332㎡,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강당, 카페 라운지, 홍보·전시 공간 등을 갖추고 주민 친화적 건물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한동해지역본부는 새로운 출발에 맞춰 지난 7월 한동해전략기획단, 미래에너지수소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서비스 기반을 강화했고 현재 2국 1실 1단 6

과 2사업소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남권 지역주민들을 위한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는 경주 SMR·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등의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 및 체계적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생활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며 원자력 연구·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 원전 기업육성으로 원자력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해양수산 정책 구상 및 수산업 활력 증대로 고부가가치 수산업을 개발하고 어촌 활력을 제고하며 연안항 시설 확충 및 효율적 연안 관리로 경북 연안의 가치를 고도화하고 어촌마을 정비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레저와 어촌관광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새로운 100년 미래는 동해안"이라며 "무한한 잠재력으로 수소 산업 미래 혁신 등 에너지 산업 대전환과 영일만항 개발 및 첨단 해양수산업 육성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대구경북 통합, 국민 공감대 '극대화'

대구시, 구군 설명회 순차 개최 노총·체육회 등 기관 단체 확대

대구시는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군 설명회에 이어 11일부터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9개 구·군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은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깊이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2차 설명회는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11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 단체 등으로 확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며 향후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대구경북 통합으로 수도권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며 대구·경북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대

구·경북은 통합공항, 달빛철도, 포항영일만 등에 기반해 교통·물류의 거점이자 거대남부경제권의 중심이며 한반도 최대면적으로 수도권 절반 가격의 저렴한 산업용지가 많고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와 수자원이 풍부해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이러한 대구·경북의 성장잠재력과 특별법에 포함된 245개의 산업·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재정분야 등 획기적인 특혜가 연계된다면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며 대구·경북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시·도민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다. 성장과 쇠퇴의 기로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만큼 지금이 통합을 완수할 골든타임이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강두용기자wondrumkakao@daum.net

영양군
YEONGYANG-GUN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 가 있는 ~ 생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경북신보·경진원' 부실한 운영 꼬집기

행감서 기관장 능력·자료부실 등 전년도 이은 미개선 분야 '질타' 채권 관리 체계화 통한 손실 저감 소액대출 저금리로 소상공인 지원 자체 사업 발굴·부족한 재원 타계 위원장 "재무제표 오류 다수 등 불성실한 태도 도민 무시 처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신보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해 점검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업무파악 능력과 감사자료 부실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경북신보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김창혁 의원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8-10등급에서의 신용보증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신용자의 신청 탈락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홍구 의원은 기보증 회수보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채권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회수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재단 내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배려와 법정무교육 이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 의원은 보증 신청자 중 상대

적으로 고신용자의 대한 신용보증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하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저신용 신청자가 본 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불법 대출이나 사채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은 경북의 경우 면적이 넓어 지점의 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

진다고 지적하며 지점 배치나 분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쉽고 빠르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림 의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여건에서 살아나가는 지역 소상공인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은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며 경기 불황에 직면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신청자의

이율을 낮춰 어려운 소상공인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재단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이 어려운 경기 여건에 놓여있는 것은 이해하나 구상 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재단의 재정 건전성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철구 의원은 경제진흥원 수행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과 평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위탁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분석, 타계할 의지를 갖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이 임

의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관된 매뉴얼 확립을 통해 수의계약이 일선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효율과 실적에 입각해 체결돼야 한다며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은 "위탁 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ESG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 기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수감자료 분석 결과 경제진흥원의 재무 관리 전반에 부실한 경향이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감자료 상 사업비 등의 재무제표에 다수의 오류가 포함돼 있을뿐더러 감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담겨 있지 않음을 꼬집어 "도민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안동의료원 적자·도립대 학과 축소 대응 전략 마련 절실

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 행감 실시 글로벌대학 관련 주요 대비안 강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안동의료원, 경북도립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관사의 정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의사들의 근무 태만이 심각하므로 근태 시스템을 흥채인식 방식으로 변경할 것과 마약류 재고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도내 3개 의료원 중 안동의료원의 직원 수와 임금이 가장 적으며 이에 따른 조직 내 갈등과 인사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문화 전반의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임기진 의원은 난임센터의 평가가 맘카페 등에서 불친절하고 부정적이라는 점과 임신 성공률이 올해 기준 13%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설정 필요성과 그동안 개최한 위원회 대면 심의 결과 자료가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병상 가동률

이 30%에 불과하고 지난해 32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안동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32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4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영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대해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3개 의료원 간 임금 비교에서 안동의료원의 임금이 동일 직종, 직급 대비 다소 낮아 직원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공공의료원으로서 산부인과나 난임센터 등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특성화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기욱 의원은 경북대로의 통합을 앞두고 학과가 11개에서 4개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규모와 질적 보완이 필요하며 기존 도립대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통학버스, 기숙사 등 복지 혜택이 통합 후에도 기존 도립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에게 유지되기를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은 지난 2022년 100%, 2023년 97.4%였던 신입생 충원률이 올해는 53.8%대로 급감해 정원 미달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며 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들의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경북도립대가 안동대가 동등한 공공캠퍼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며 국내 명문대 및 외국 대학과 복수학위제 연계 및 광역비자제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윤승오 의원은 통합학교 교명에 대해

1순위였던 글로벌대학이라는 교명을 사용할 수 없어 2순위였던 경국대학교가 선정된 점에 관한 준비성 없는 통합 과정에 대해 지적했으며 올해 대학정원이 47만명인데 비해 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인 것을 언급하면서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학과를 육성하고 지방대가 살아남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올해 정원의 40% 정도 미달될 것으로 예상돼 학생 수 미달에 대한 자구책 마련,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필요성, 경북도의 산업 정책에 맞는 특성화학과 육성, 기숙사 1인 1실로 변경 등을 지적하면서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통합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올해 수시모집 경쟁률이 2.73대 1에 그쳐 이후 정시모집에서 학생 수가 미달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북대라는 교명에 대한 재검토와 통합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 경북도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이자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주 지역 미래세대 위한 미래재단과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학교 설립 제안

김소현 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소현(사진) 경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청소년 미래재단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경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지원을 위한 경주시 미래재단의 설립으로 장학금 및 창업 지원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청년층에게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이 되는 재단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또 두번째 제안으로는 경주시가 미래자동차·원자력 산업과 관련해 e-모빌리티연구단지, SMR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국내외 우수 인재의 유입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국제학교의 설립을 통해 인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소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미래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f12@daum.net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p>조기퇴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p>학교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심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세계 증류주 원톱 '안동소주' 글로벌 사로잡다

도, 국제 포럼 열어 판로 확대
국내의 주류전문가 강연·토론
품평회 진행 수상작 26점 선발



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안동 스탠포드호텔 연회장과 안동시 일원에서 안동소주의 세계시장 진출 동력확보 및 국내 증류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안동 국제 증류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안동소주협회가 주최하고 ㈜조선투자가 주관한 국제 주류 행사로 경북도와 안동시가 공동 후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시장, 국내외 주류전문가, 주류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안동시에서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안동소주 BI·공동주병(안) 공개 △세계 증류주 권위자 기조 강연 △국내외 주류전문가 강연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독일 증류주 트렌드 스카우터인 위르겐 다이벨(다이벨 컨설턴트 법

인) 대표가 '세계 증류주 트렌드와 한국의 증류주'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위르겐 대표는 세계 최초 코낙 사무국(BNIC) 인증 교육자이며 현재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의 증류주 부문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전문가 강연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위르겐 다이벨 대표, 김경문 뉴욕 KMS Imports 우리술 수입사 대표, 더글라스 킴 라스베가스 MGM리조트 총괄바이어, 이승주 세종대 교수

등 국내외의 주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부대행사로 진행된 '대한민국 증류주품평회'는 전국에서 총 4개 부문 100여점이 출품됐으며 국내 주류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향기, 색, 맛의 관능 평가 및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수상작 26점을 선발, 각 부문에서 1점씩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4개 부문의 대상작을 별도의 심사를 거

쳐 대한민국증류주대상 1점을 선발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포럼은 안동소주를 스카치위스키, 마오타이처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경북도를 세계 주류 흐름을 주도하는 메카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3월 업체, 대학,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동소주 세계화 TF팀을 구성해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기준 마련, 수출 확대 MOU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 세계 최대 독일 프로바인 B2B 주류전문 박람회에 참가해 지자체 최초 독립 홍보관 운영 등 세계적인 명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주류 전문 박람회인 'ProWein 2025'에 참가해 안동소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고 BI 활용 공동주병 생산·포장 패키지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8억원인 안동소주 수출액을 오는 2028년 40억원 목표액 향상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주시민과 함께 가장 성공한 APEC 만들자

APEC 성공 개최 기원 콘서트 성료
시민 1만명과 공감대 형성·확합

1년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성공개최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화합의 장이 경주에서 개최됐다.

지난 8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콘서트로 나눠 성공 퍼포먼스, 드론쇼 및 흥취진 등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1부 기념행사는 APEC 주제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과거 유산과 미래의 비전이 만나는 경주에서 APEC 2025를 준비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작된 이 영상에는 APEC 정상회의 유치 과정이 담겨 치열하고 간절했던 경주시민들의 노력과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주제 영상이 끝난 후 이철우 지사, 주낙영 시장, 박성만 도의회 의장 등은 연단에 올라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남은 1년 동안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성공개최 기원 메시지 드론 쇼였다. 수백 대의 드론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첨성대, 천마도, 신라관으로 살아있는 빛의 향연을 보이다 마침내 21개국이 경주로 모

여 행사 타이틀을 이루는 쇼를 만들어 냈을 때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 담긴 1만여명의 시민들의 탄성이 경주시민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또한 기념행사를 연계한 하모니이즈와 뮤지컬 가수 흥취진의 공연과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고조됐다.

기념행사 끝난 후에는 이찬원 등 유명 연예인들과 경주, 경북 지역민들의 행사 성공개최 응원 메시지 영상이 상영돼 이날 콘서트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응원 영상이 끝난 후 행사를 찾은 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던 지역 가수와 함께하는 2부 성공 기원 콘서트가 열렸다.

경주 출신의 만인니 한혜진을 비롯해 포항의 자랑 전유진, 영주 출신 정수연 등 경북 출신 가수들이 펼치는 열정적인 무대는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힘썼던 시민들의 노력을 위로하고 1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할 힘을 전달해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가 가진 천년의 역사가 APEC 선정의 원동력이며 이번 행사의 성공은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지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선진 경주시민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한 APEC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오는 15일,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21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에게 내년 개최지 경주를 알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문화관광공공, 갑질근절·청렴경북 실천 '한마음 한뜻'

청렴문화주간 일한 사행시 시상
청렴과거시험 장원·우수작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7일 육부초 2층에서 '청렴과거시험'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렴과거시험'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문화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공사 임직원들을 대상 '갑질근절'과 '청렴경북'을 주제로 사행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총 40건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공정한 선정과정을 위해 임직원 공개 투표를 진행해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순서로 장원 1편, 우수 2편을 선정했다.

김남일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청렴·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최근 2024년 경북도 출

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도, 다무포 하안마을 고래장터 '인기'

경북도는 지난 9일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에서 어촌마을 소득 활성화를 위한 '다무포 하안마을 고래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주도의 소규모 축

제와 마을 장터를 운영,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어촌마을에는 어업의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한 '다무포 하

안마을 고래장터'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산물 향토 요리 판매, 해녀 체험, 벽화 체험, 바다 베품시장 등을 운영했다. 오후에는 길거리 공연도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가을 바다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마을 주민에게는 소득 창출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을 여름 한철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사계절 보고 싶고 오고 싶은 해변으로 만들도록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임종식 교육감, 수험생에 응원 메시지 전해

안동고·길원여고서 지원 방안 살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오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고등학교와 길원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시험장 학교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임종식 교육감은 고3 지도교사들을 만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며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험생들에게는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해 직접 응원의 말을 전하는 대신 교사들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학교의 진학 지도 상황을 점검하고 수능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폈다.

한편 오는 14일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경북 지역에서 총 1만9856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이는 전년 대비 288명이 증가한 수치다. 수험생들은 도내 8개 시험지구의 7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수산물특화!
참바다맛!
경주바다

경주농수산물공동브랜드
경주이사금
ESAGEUM
경주이사금

경찰,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조사 착수... 12일 국과수 감식 의뢰



파이넥스 3공장 원인 규명 나서 최초 폭발 이후 5시간 만에 진화 1명 신체 일부 화상 생명 지장 無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에 나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파이넥스 공장 설비에서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사고는 10일 오전 4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에서 발생했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발생한 불은 5시간여 만인 오전 9시 20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어 대구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 7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설비 가동을 앞두고 질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불이 난 파이넥스 3공장은 지난 2014년 가동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경주 서면 재활용 공장 불... 3일째 진화 중

원인불명 화재 발생, 인피 없어 소방 당국, 장비·인력 대거 투입

경주시 서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3일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지난 8일 새벽 2시 38분께 발생했으며 소방 당국은 소방 장비 23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10일 현재 공장동 3개 동이 모두 불에 타고 사무동 1개도 일부 소실됐으며 300t 재활용 폐기물 디미가 계속 불타고 있어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던 근로자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화 후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10시 24분께는 경주시 안강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 장비 17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오후 11시 3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공장 내 사무실 절반이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성진기자wba112@daum.net

핫플레이스로 가득 채운 문경 관광 홍보 영상 '눈에 띄네'

문경시 관광 영상 공모전 시상식 소문호 감독 '대상' 수상의 영예

문경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2024 문경시 관광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1분에 담아낸 문경'이라는 주제로 문경 관광 콘텐츠를 59초 안에 핵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과 문경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30초 이내 분량의 숏츠 영상 두 부문으로 기획해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24작품을 접수하고 14작품을 선정했다.

공모전 영예의 대상(상금 300만원)은 문경에 오면 꼭 가봐야 할 장소를 경험한 모습으로 담아낸 소문호 감독의



'역사와 자연의 조화, 문경을 걷다', 최우수상은 여행자의 시각에서 문경의 매력을 담아낸 김재현 감독의 '문경에 물들다'에 돌아갔다. 쇼츠 부문에서는

문경 곳곳을 드론으로 촬영해 역동적인 영상을 출품한 박수진 감독의 'Welcome to 문경!'이 1위를 차지했다. 문경시는 이번 영상공모전에서 발굴

된 콘텐츠를 활용해 박람회 또는 SNS 등 문경 관광 홍보에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봉화, 범국민 청소년 보호 캠페인 개최

군청·유관기관 100여명 참가 봉화읍 일대서 가두행진 벌여

봉화군은 지난 7일 봉화읍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하기 위한 2024년 범국민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봉화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군청 및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

협의회 위원 등 약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가두행진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어깨띠에 피켓을 들고 봉화읍을 행진하며 주민들에게 청소년 보호 관련 전단지 등을 전달하고 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배진태 부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북경찰, 아동학대 예방·근절 기간 운영

학대(우려)아동 안전 확보 '집중'

경북경찰청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3주간(11월 11일~29일)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집에 따라 인식개선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추세다.

이번 기간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를 통해 신고 활성

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경찰, 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우려아동(107명) 대상 집중 모니터링으로 재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례 관리 중인 고위험군 아동(78명) 등에 대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방문 등 공동 대응 활성화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김천시, 림피스킨병 유입 차단방역 '총력'

방역대책본부 운영·예찰 강화 흡혈 매개충 방제작업 지속 추진

김천시는 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소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올해 림피스킨은 지난 6월 기준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17건이 발생했고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은 없는 상태다.

림피스킨 발생농장은 사육 두수 전체가 아닌 정밀검사 후 양성 개체만 살 처분하며 이로 인한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천시는 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상황 등 지속 예찰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소 전두수에 대해 림피스킨 백신 일제(보강)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며 예

비비 등을 확보하고 소 사육농가에 소독약품(1200kg), 흡혈곤충 살충제(2943포), 생석회(3000포)를 배부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축사 주변 및 웅덩이 등에 흡혈 매개충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가축시장 출입 차량은 거점 소독 시설을 방문해 소독을 실시(거점 소독 시설 24시간 운영)해야 하며 림피스킨 백신 접종 개체만 농장 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

이상명 축산과장은 "림피스킨 백신 접종은 완료됐지만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외부인의 농장 내부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흡혈곤충 방제 및 지속적인 농장 소독과 더불어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6기 미래발전자문위 출범... 시책 효과 극대화

시장·민간 전문가 등 42명 위촉
전체 위원장에 신병 변호사 선출
위원회 전문성 강화해 효율성 ↑



경주시 시책 자문기구인 '제6기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지난 7일 시청 앞천홀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경주 비전 설명, 임원 선출,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구성된 42명의 위원은 6개 분과별로 오는 2026년 8월 말까지 미래발전 전략 수립, 부서별 시책추진 등 각종 자문에 응한다. 주낙영 시장은 비전 설명을 통해 "남은 기간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등 주요 인프라와 SOC 핵심사업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상회의 특별법 제정 등 지원 근거도 마련해 APEC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기반으로 현재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유치와 미래차 소재부품 플랫폼인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미래 첨단과학 혁신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경주의 또 다른 매력을 소개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전체 위원장으로 신병 변호사를, 부위원장은 김동락 전 경북도교육목원강진흥원장을 선출했다. 6개 분과위원장은 △미래전략 분과에는 김동락 전 경북도교육목원강진흥원장 △문화관광분과에는 이재호 수오재 대표 △일자리경제분과에는 권영훈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경주교류회장이 위촉됐다. 또 △농림축산해양분과에는 김형철 경주시농어업회의소 회장 △도시개발분과에는 김경대 전 한동대학교 교수 △시민생활 분과에는 손귀영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2014년 9월 출범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그간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 차 없는 거리조성, 코로나19 대응방안, APEC 유치 지원, 경주비전 2040 장기종합 발전계획 등의 주요 현안에 심도 있는 정책 자문으로 시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주낙영 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당면 현안 상황에 대해서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정책 자문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 우리동네 모범 공무원

"민원인 입장 헤아리며 업무 매진할 것"

한영민 동천동행복센터 주무관
적극 민원해결 힘써 타의 귀감

경상투데이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와 언론사가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칭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장(면장)이 칭찬하는 모범 공무원을 매주 한 차례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미소천사로 불리는 첫 번째 주인공은 경주시 동천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한영민(행정8급) 주무관이다.

한영민 주무관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한 배경에 동장은 "한 주무관은 무더위 속에도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불법 옥외광고를 제거하는 등 힘든 환경업무도 성실히 일을 처리해 타 주무관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동천동은 주거지역과 상가 지역이 혼재해 있고 소규모 원룸·빌라가 밀집해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 옥외광고물도 요청 민원이 많은 곳이다. 한 주무관은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복지센터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25대를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지역을 줄여 환경을 개선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영민 주무관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자 무더위 속에도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묵묵하게 일을 처리해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한 주무관은 "행정민원팀으로 발령 후 민원 업무를 통해 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을 해결해 가는 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응원과 먹거리를 챙겨주시는 것에 감사함과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계기가 돼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됐다"며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 몹시 놀라웠다. 공무원으로서 판단은 정확하게 하되 민원인의 최대한 입장을 헤아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naver.com

가상공간 속 경주 역사·문화 체험 '이목집중'

디지털 소사이어티 콘퍼런스 '우수상' 사용자 맞춤 3차원 지도 서비스 '호평'

경주시는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주관한 '2024년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 콘퍼런스'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상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주시가 개발한 '디지털트윈 및 인공지능(AI) 3차원 공간정보 맞춤형 지도 서비스'가 성과를 인정 받은 결과다.

경북 지역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춤형 경로를 대화형 3차원 공간정보 지도로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V-WORLD 지도 등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경주축협, 저메탄 인증사료 '천년그린' 출시

다음달부터 본격적 판매 나서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 국내 최초로 소에서 나오는 트림이나 방귀(메탄가스)를 줄여주는 TMR 저메탄 인증사료 '천년그린'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 양은 최대 500L로 이는 소형차 한 대의 1일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친환경 사료 '천년그린'은 소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여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메탄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첨가제 '보베아-10'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은 전 세계 65개국에서 사용될 만큼 안전성이 입증됐다.



10일 경주시와 축협 등에 따르면 소의 '방귀'에 포함된 메탄은 환경오염 주범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에 열기를 가두는 온실효과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로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

경주축협은 '보베아-10'의 주성분인 3-NOP(3-Nitrooxypropanol)을 통해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25%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료 출시에 힘 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친환경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하상욱 조합장은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뢰받는 축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市, 맞춤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 육성 '박차'

스마트팜 온실 임대농장 조성해
청년농업인 4명에 영농 기술 전수

경주시 내남면 신농업혁신타운에 조성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첫 수확을 거뒀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청년들이 영농 기술을 배우고 스마트팜 온실 운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농장은 교육 및 실습 공간이다.

해 영농 활동을 지원해 왔다. 청년 농업인들은 올해 6월부터 토마토 온실에서 재배 준비를 시작해 지난 달 첫 수확을 완료했으며 딸기 온실은 이달 말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없이 영농에 도전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술 컨설팅과 실습 교육을 지원받아 전문적인 농업 지식을 쌓고 있다.

시는 20억원을 투입해 총 2400㎡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2동을 조성했으며 토마토와 딸기 재배 시설로 구성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난해 완공했다. 이후 임차인 모집을 통해 청년농업인 4명(토마토 2명, 딸기 2명)을 선정

다음 임차인 모집은 오는 2028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최대 3년 동안 온실별 2명씩 총 4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온실 임대료는 온실당 연간 100만~200만원이며 작물 입식 비용과 전기세 등 일부 영농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5대 주정차금지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소화전 5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차해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로 간주(화재 시 소방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과태료 8~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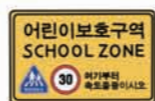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시 각종 사고 위험). 과태료 4~5만원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멈춰 있는 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횡단보도가 가로막혀 보행자가 불가피하게 차도 이용 등 위험 초래). 과태료 4~5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멈춰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원활한 차량 통행, 운전자 시야 방해). 과태료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이 불법주정차 대상!(주의)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집중 단속 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하는 경우 각각 1만원씩 추가 ※소화전(5m 이내)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과태료 2~3배↑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수능 D-3’ 수험생 시험장 등곳길 빈틈 없게

유관기관 협업 종합대책 마련 시험장별 교통질서반 등 편성 공공 10시 출근 도로정체 저감 철도 비상대기 6편 등 집중 대비

대구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시행에 따른 수험생들의 시험응 시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교통소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일인 오는 14일, 전날도(2만4347명)와

비슷한 수준인 2만4346명의 수험생이 대구시 내 51개 각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별로 구·군과 협업해 교통질서반과 주·정차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309명의 공무원과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52대의 장비(순찰차 37대, 견인차 6대, 수송지원 9대)를 활용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전방에서부터는 차량 진·출입을 자제시키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험장 주변 일대 교통상

황관리는 물론 출근 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출근 시간도 1시간씩 늦출 방침(오전 9시→오전 10시)이다.

51개 시험장 중 23개 시험장이 도시철도역사 역세권 내에 분포돼 있어 수험생 등교시간대 운행간격 단축을 위해 호선별 각 4회(12회) 증회 운행함으로써 평소 6-9분 간격을 5-6분대로 줄인다. 그리고 돌발상황을 대비해 별도로 비상대기 6편(월배 1편, 안심 1편, 문양 2편, 철곡 1편, 범물 1편)을 추가 편성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나드리콜 차량은 등록된 회원 중 신

청한 수험생에 한해 당일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나드리콜 차량 신청방법은 콜센터(1577-6776)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사전 접수를 해야 하며(등록된 회원 중), 탑승 시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각 시험장 주변 불법주정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물은 사전에 이동시키고 일반 운전자들은 수험생 수송 차량에 적극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시설관리공, SNS로 시민과 소통 ‘通’

소통어워즈 공기업 부문 대상 영예 고객만족도 등 종합적으로 ‘호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그간 공단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올해 17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후원, 고객 및 시민과의 소통 성과가 탁월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한다. 그중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콘텐츠 적합성 △상호 작용성 △운영 독창성 등을 평가해 수여되는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공단은 고객만족도, 콘텐츠 경쟁력 등 종합적인 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와 공단



의 주요 업무를 친근하게 알리는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써왔다.

특히 매달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제작한 시민기자단의 SNS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랜선 여행, 사업소 인근 맛집 소개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활용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문기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소방,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총력’... 소방전술훈련 평가

지역 9개 소방서 현장지휘관 등 무각본 소방전술훈련 평가 참여 적절한 소방력 배치·운영 노력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겨울철 대형화재를 대비해 불특정 공장, 지하주차장 등 실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소방전술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무각본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소방전술훈련은 대구 지역의 9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장지휘관과 119안전센터 대원들이 참가해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장, 지하주차장 등 화재 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절차, 동원자원 관리, 소방용수 확보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했다.

이번 소방전술훈련 평가 중점사항은 선착대장, 현장지휘관 등 현장지휘관과 긴급구조지원대의 임무 및 역할을 수행하는 지휘통제 절차, 동원된 차량과 인력에 대한 현황관리, 교대조 운

영, 자원결집지 설치 등 적절한 소방력 배치와 운영을 위한 자원관리, 원활하고 지속적인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점검, 원거리 소화전 활용을 위한 순환급수 등 소방용수 확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차량대기, 가상상황 부여, 소방차량 출동을 통해 대원들이 현장 활동을 실시하는 흐름으로 전개됐으며 구조대상자 발생, 연소 확대, 대원고립 등 돌발 상황을 부여해 현장지휘관 및 소방대원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활동으로 실제 화재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수성과를 거둔 소방서에는 시상상을 수여하며 소방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격려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겨울철 대형화재 사고를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의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며 더욱 완벽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위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무료 대여

소규모·나들이 행사 시 지원

군위군 보건소는 이번 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소규모 행사 등 나들이 행사 시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자동심장충격기 무료 대여사업은 플라멩크 등 소규모 행사나 봄·가을철 나들이 행사 운영 단체(기관) 및 개인에게 무료로 대여해 행사 운영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으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많은 군위군에

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기간은 휴일 포함 최대 1주이며 대여 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여 희망자는 행사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군위군 보건소 역학대응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진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무료 대여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대구보건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황리 마무리’

치위생학과 에나벨팀 대상 ‘박수’

대구보건대학교 DHC RISE센터는 지난 5일 ‘동성로 D-EUP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시범 사업과 연계해 골목 상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8개 팀 44명의 참가

학생들을 포함해 교직원과 계명대학교 김병국 창업교육센터장, 시간과공간 연구소 권상구 상임이사 등 내빈과 심사위원단을 포함해 총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경진대회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두 차례의 심사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1차 심사는 사업계획서 평가로 각 팀이 수립한 창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2차 심사는 IR

피칭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팀은 15분간 발표를 통해 사업의 전략적 차별성과 재무적 성과, 투자자 이익 구조 등을 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대상의 영예는 에나벨팀 치위생학과 2학년 유성진·위자현·김수민·장은정·권민서 학생이 차지했다.

에나벨팀이 제안한 ‘체이프 메스’는 의료용 메스 칼날의 혁신적인 탈부착 방식을 제시했다.

기존 제품들이 메스대와 칼날을 위

에서 아래로 탈부착하는 방식과 달리 메스대 고리 위에 칼날을 얹어 돌리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간호학과 도보배(25·여) 학생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우수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 준비과정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대구보건대학교와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혁신플랫폼 전자정보기기사업단이 우수팀에게 상장을 수여해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어르신 행복한 삶 이어가길”

교통공, 장수사진 촬영 훈훈

대구교통공사 참사랑봉사단 1고객지부는 지난 7일 1호선 명덕역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범물노인복지관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내 사진동호회 ‘열린 창’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이 사진 촬영 전 어르신의 머리 손질 및 메이크업을 하고 옷매무새도 정리해 단정한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촬영된 장수사진은 추후 보정을 완료해 액자로 제작 후 이달 말경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 어르신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 오늘 하루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 다. 장수하라는 의미로 예쁘게 사진도 찍어주고 액자로 만들어 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혁 사장은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孝 문화 선도할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첫발

개원식 개최 내외빈 100명 참석
선비촌 등 연계해 명소 성장 도모
전 연령 아우르는 체험·교육 제공
세대 간 이해·소통의 장 '활짝'

'선비의 도시' 영주시에 전통 효 문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효의 가치를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 문을 열었다.

지난 8일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순흥면 선비세상으로 26)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박남서 시장을 비롯해 영주시의회 의원, 학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진흥원은 지난 2012년 정부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1762.44㎡ 규모로 건립됐으며 2018년 시설을 준공 이후 2023년 영주시 출연의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진흥원은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3대가족이 함께 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하 1층 교육체험실은 효의 기원과 한국 효사상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시설로 위인들의 효 이야기, 현대 효, 세계의 효 문화를 아우르고 있다.

지상 1층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효 교육, 청소년 대상의 인성교육,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법, 노년층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등 폭넓은 연

령대의 효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진흥원은 이동이 어려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 교육의 접근성을 높인다.

진흥원은 인근의 선비촌과 선비세상 등과 연계해 상설·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형 체험관광 명소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한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박남서 이사장은 "효라는 우리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흥원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이루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아름다운 '예천 삼강나루캠핑장' 으로 GO!

가족 친화형 우수 공공야영장 선정
곤충 형상화 펜션·친환경 시설 눈길

특히 곤충 도시 예천이라는 지역 특색을 살려 곤충을 형상화한 펜션 외관과 친환경적인 시설이 눈길을 끈다.

예천군은 삼강문화단지 내에 조성된 '삼강나루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우수 공공야영장 평가에서 '가족(어린이)친화 부문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우수 공공야영장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됐으며 전국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및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삼강나루캠핑장은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만나는 삼강 나루터와 '낙동강 칠백리 마지막 주막'으로 유명한 국가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흥원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이루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캠핑장은 1만5521㎡ 규모로 △파브르펜션 10동 △오토크캠핑장 20면 △관리사무실, 어린이 놀이터, 바닥분수, 편의동,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두루 갖췄으며 인근에는 삼강주막과 회룡포 둘레길,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쌍절암 생태숲길 등 볼거리가 많아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안성맞춤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야영장에 분야별 현판을 수여하며 한국관광공사의 고크캠핑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1년간 홍보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된 삼강나루캠핑장을 많은 분이 찾아와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라며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예천의 아름다운 관광지들과 함께 더 사랑받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영 기자p04140@naver.com

안동 신도시 커뮤니티센터, 소통·협력의 공간으로 '밀그림'

시,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경덕 건축사무소 '하나되기' 선정
내년 7월 착공·2027년 개관 목표

안동시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결과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경덕 건축사무소가 제출

한 '하나되기'다. 이 설계는 안동시민·예천군민·이주민이 하나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안동시는 이번 공모전 당선작을 바탕으로 향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5년 7월 착공,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공사비는 약 77억원이다.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경북도

정 신도시 활성화와 주민에게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건물로 갈전리 1181번지 일원에 연면적 2229.0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 구성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카페, 소매점, 팝업스토어 등의 임대공간, 교육·문화 행사·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과 프로그램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교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후속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꿈 이루길"

봉화기정·한일떡방앗간, 수험생 109명에 선물꾸러미 전달

이재진 봉화기정 대표와 최예원 한일떡방앗간 대표는 지난 8일 지역 내 3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2025년 대입 수험생 109명에게 나눠 줄 선물꾸러미(참쌀떡, 호두타르트, 음료)를 전달했다.

봉화군 청년창업가 이재진 대표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도에도 청년창업가 대표들과 뜻을 모아 수능 응원 선물꾸러미를 전달한 바 있다.

이재진 대표는 "힘겨운 수험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지역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군수는 "청년 창업가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만큼 그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돼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문경시, 청소년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연극 관람으로 언어의 미학 재발견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7일 특별주중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찾아오는 문화·예술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며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를 파견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연극단 백지들의 공연 '변신:

호모 그레고리아'는 프란츠 카프카의 원작을 재구성한 것으로 별레로 변한 집안의 가장 그레고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노동자'를 창의적으로 조명해 이해와 공존의 사회 인간상을 제시하는 공연이었다.

'변신: 호모 그레고리아'는 잃어버린 문학의 순수성을 연극을 통해 회복하며 언어의 미학을 재발견하며 청소년들과 교감하는 연극으로 진행했다.

공연을 관람한 아카데미 김모 학생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연극 공연을 눈 앞에서 본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



이었고 나의 상상의 힘이 성장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감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의성군 '떡·한과 디저트 플래너 1급' 교육

생활개선회원 20명 대상 진행

의성군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생활개선회원 20명을 대상으로 '떡·한과 디저트 플래너 1급'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떡·한과 디저트플래너 자격증 교육은 다양한 방식의 떡과 한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다양한 전통 디저트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다양한 맛과 모양의 전통 디저트를 주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될 예정

이며 교육과정은 사과찰송편, 깨다식, 호두정과, 쌀약과 등 총 18종의 디저트 실습으로 구성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교육이 생활개선회원들의 전문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의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생활개선의성군연합회는 해마다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발전과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안동 산약 (마)

“산속의 장어, 위장보호에 좋은 안동산약(마)”

산속의 장어, 위장보호에 좋은 안동산약(마)

구미소상공인센터, 소통·화합의 축제 '성료'

市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열어 우수사례 발표·유공자 시상식 구미시장 "소상공인 재도약과 상공업 발전 위해 적극적 지원"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2024 구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8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장호 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강명구 국회의원, 김상현 구미세무서장, 최재운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학장, 이명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 임택규 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장, 유승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장을 비롯 기관단체장, 상공의원, 지역 소상공인 단체 및 업체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은 개최, 내빈 소개 및 인사, 구미시 소상공인 우수사례 발표, 우수 소상공인 및 임직원 시상식, 우수 소상공인 홍보관 부스 참관 등으로 구성됐다. 구미상공회의소 1층에서는 소상공인 포토 부스 사진촬영도 함께 진행됐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

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주관한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는 올해 구미시로부터 구미상공회의소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브랜드·디자인 개선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을 통한 유망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상담, 맞춤형 컨설팅, 기초지식 학습을 통한 경영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가 발맞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미디어아트+국악 접목 '대가야 설화' 눈길

27일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 문화예술단체 '하랑' 국악극 선배

고령군은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예술단체 '하랑'이 오는 27일 저녁 7시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토제방을 이야기'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2024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단체 하랑은 고령 출신의 젊은 국악전공자들이 모인 가야금 중심의 국악실내악 단체이며 대가야의 문화유산을 이어받아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토제방을 이야기' 공연은 대가야의 설화를 바탕으로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과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미디어아트와 국악으로 컬래버한 새로운 장르의 국악극이다.

성과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미디어아트와 국악으로 컬래버한 새로운 장르의 국악극이다.

문화예술단체 하랑은 이번 공연 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국악을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공연트럭으로 8개 읍·면을 다니며 찾아가는 공연도 진행 중이다.

이달 7일 우곡면 대곡1리 공연을 맞이한 한형일 이장은 "몸이 불편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에 직접 와서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김수영 대표는 "고령군은 대가야 고도의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고장이다. 대가야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랑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연을 준비했으니 오는 27일 고령에서 뜨거운 공연을 펼칠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 2월에도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칠곡군 한미친선위원회,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 되새겨

캠프 캐롤 미군 장병 30여명과 한미친선의 날맞이 역사 탐방

칠곡군 한미친선위원회(회장 이삼환)는 지난 7일 2024년 한미친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한미친선의 날 행사는 주한미(美)물자지원어단, 방공포대대 등 캠프 캐롤 내 근무하는 미군 장병 30여명을 대상으로 칠곡군 역사·문화 탐방으로 진행됐다.



화기념관 등을 방문해 한국전쟁 시 낙동강 방어전투의 역사와 참전 UN군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공예테마공원을 방문해 사물놀이, 칠곡국제트렌스미디어축제를 즐기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졌다.

한편 칠곡군 한미친선위원회는 양국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해마다 한미친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칠곡군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로서 지금도 낙동강평화축제를 개최해 미국 등 16개 UN참전국과 용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한미 우정의 공원을 조성해 전쟁에 희생된 미군의 넋을 기리는 등 한미 간의 수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명실상주스포츠클럽, 전국 대회서 '두각'

교류대회서 수영·탁구·배드민턴 3종목 우수한 성적

상주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문경시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에 명실상주스포츠클럽이 참가해 수영과 탁구, 배드민턴 3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은 문경의 14개 경기장에서 10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의 131개 지정스포츠클럽과 18개 예비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약 3000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쳤다.

명실상주스포츠클럽 수영 전문 선수반은 개인전에서 김형준 선수가 평영 100m 우승·50m 준우승, 임서연 선수가 자유형 50m 우승·배영 50m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단체전에서 혼계영 200

m 우승과 함께 그 외 여러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탁구에서도 여자 초등부는 이도연 선수가 우승, 정서현 선수가 준우승, 김혜민 선수가 3위를 전부 차지하는 쾌거와 함께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거뒀으며 남자 초등부는 단체전 B팀 준우승과 A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배드민턴은 여자복식 성인부 3위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관우 클럽 회장은 "멋진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앞으로도 명실상주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종목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김천시, 올해 열린어린이집 21개소 선정

교사·교구 등 우선적 지원 혜택

김천시는 지난 7일 2024년 열린어린이집 3개소(리더어린이집 외 2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현판을 수여했다.

'열린어린이집'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의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 확대가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로 학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4년 열린어린이집은 22개소(신규 선정 3개소, 재선정 19개소)가 신청해 21개소(신규 선정 3개소, 재선정 18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총 3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이 부여, 보조교사 및 교재교구비 등이 우선 지원된다. 교육부에서는 지자체별 전체 어린이집의 40%를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현재 49%를 차지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성주,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성주군은 지난 8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성주군 관리감독자 28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된 김상도 대한산업안전협회 지회장, 이진섭 국장, 김창덕 부장, 김중배 강사는 관리감독자가 꼭 알아

야 할 핵심업무, 동료를 살리는 응급조치, 위험성평가 실무 및 사례,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작업방법 등을 중심으로 8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수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과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라며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조방낙지
대표 손 일 희

경주시 중앙로29번길 13
☎ 054-775-3002

(주)강산투어
대표 최 병 오

경주시 원화로 372
☎ 054-753-7777

공간종합주방
대표 양 주 석

경주시 알천남로 128
☎ 054-774-1444

포항시, 세계최고 인공지능 혁신도시 '도약'

AI선도도시 경북 포항 비전 선포 인프라 구축·전략 등 방안 발표 민관 전문가 참여 '혁신위' 출범 AI오픈이노베이션센터 업무협약

포항시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AI 메카도시 포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원대한 비전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도, 지역대학,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AI 선도도시 경북 포항 비전 선포식'이 지난 8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일만 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조성배 국가AI위원회 기술혁신위원장, 최성배 한동대 총장, 서영주 포스텍인공지능연구원장, 경북도 내 디지털 기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AI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며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에 대응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글로벌 기관장 및 전문가들과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으로 새로워질 AI 선도도시 포항 도약을 위해 기관 간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합쳐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조성배 국가AI위원회 기술혁신위원장이 'AI시대 기술혁신 중심도시 포항으로의 도약 전략' 특강으로 포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한 포항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언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전략으로 △AI 기반 도시 인프라 구축 △AI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지역특화 AI 솔루션 개발 △중장기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이 산

업·경제·일상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혁신으로 포항의 미래 대도약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북 포항 AI 전략'을 발표했다.

권 국장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위한 'AI 펀드(1000억원 규모)' 및 AI 펀드(1000억원 규모) 조성 △반도체·과학·산업·사회 4대 분야 AI 대전환 촉진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글로벌 기업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글, 아마존, 네이버, 포스코미래기술연구원, KT, 포스텍, 한동대,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및 지역 R&D 기관 등 AI 분야 최고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경북포항AI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

북포항AI혁신위원회는 향후 국가AI위원회에서 추진될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지역 AI 혁신거점 △권역별 AI 특화산업 지정 등 중요 국책사업 유지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 중심의 밸류체인 연계·협력 및 AI 정책 합동프로젝트 추진, 민관 소통 창구를 위한 경북도 내 56개 디지털 기업이 참여하는 '경북 포항 AI 기업 얼라이언스'가 발표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특화 공간이자 AI 창업허브 인프라가 될 'AI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위해 KT, 에릭슨 LG, 카카오톡, 포스텍, 한동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TP 등 10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다.

시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포항형 AI 산업 기반과 최적의 육성생태계 조성 등 타 지자체보다 한발 빠르게 대한민국 AI 대표 도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책추진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철강도시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디지털 혁신이고 그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며 "경북포항AI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최고 인공지능 혁신도시 포항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g0811@naver.com

청도군, 수능시험 대비 종합대책 점검 "기관 협력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할 것"

청도군은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련 부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수험생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균형, 경찰서, 자원봉사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시험장 주변 공사 일시 중지 △교통

통제 △주변 환경정비 △긴급 환자 이송 준비 등)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지만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수험생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울릉,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하는 사회 앞장

군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울릉군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고자 지난 7일 '2024년 울릉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울릉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수민 (사)대구시장애인인권협회 회장과 김예준 강사를 초청해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사회적 인식의 변화, 수어와 수어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입니다"라는 주제로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개개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또한 직장내에서도 동등한 직장동료로 바라보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영천시,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영천시는 지난 8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기문 시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구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으로 근무하는 최희권 행정관이 강사로 나서 실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

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피해 예방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시간을 가져 공직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최기문 시장은 "폭력예방은 공공기관의 책무이자 건전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석열 기자jisy9220@hanmail.net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영하는 울진 만든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취임·발대식 권익 보호·지위 향상 역할 '최선'

울진군은 지난 5일 울진군 후포면사무소에서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손병복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취임식은 내외빈의 축사 및 격려사, 회장 취임사, 회장 및 임원 임명장 수여, 임원선서,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새로 취임한 박명숙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연대를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09년 7월 최초 창립했으며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 상호 간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군의 약 6870명의 소상공인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며 울진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에도 널리 전해질 수 있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울진군에서도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

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며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경북종합폐차장
이사 정 관 호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7
☎ 010-7755-2933

돈덩어리
대표 우 성 만
경주시 백률로 42
☎ 054-773-5025

김경희난타연구소
대표 김 경 희
☎ 010-3953-7576

말하는 은행나무에 소원 빌러 '칠곡여행' 출발

군, 가을맞이 SNS 인증 이벤트 지역 홍보·관광 활성화 '도모'

칠곡군은 가을을 맞이해 기산면에 위치한 천 년된 말하는 은행나무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한 '천 년의 소원을 담다!' 라는 소원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천 년 된 은행나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

을나들이 관광명소로 칠곡군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칠곡군 기산면에 위치한 '말하는 은행나무'는 가을 대표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방문해 소원을 빌고 개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방문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해시태그 #매일매일칠곡소풍, #칠곡여행, #말하는은행나무, #소원을말해봐 등을 추가해 사진

을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공식 SNS채널(인스타그램 @peaceful_chilg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일매일 칠곡소풍' SNS 채널을 보고 은행나무를 방문했다는 대구에서 온 임산부는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바라고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은행나무에게 이야기했다"며 "주위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은행나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천 년의 소원을 담다!' SNS 소원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이 칠곡에서의 추억을 SNS로 공유하고 아름다운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칠곡의 가을을 만끽하고 나아가 바라는 소원을 함께 빌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영양군, 지역 농산물 유통망 확 넓힌다

주요 농산물 유통기업과 업무협약 공급 체계 강화·판매 확대 협력키로

영양군은 국내 주요 농산물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오도창 군수를 비롯해 권장희 서울청과㈜ 대표이사, 백태근 안동스마트청과㈜ 대표이사, 황찬영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장, 양봉철 영양농협 조합장, 박명술 남영양농협 조합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양군 내 우수한 농산물의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판매 확대를 목표로 각 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들은 영양군 농가의 소득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효율적인 유통 체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청과주는 지난 2021-2022년 서울특별시 청과부분 도매시장 법인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영양군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안동스마트청과주는 디지털 도매시장 플랫폼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고품질의 영양사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영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영양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경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 끼·열정 가득한 무대 선사

15개 팀 발표회, 유공자 표창 진행 APEC 성공개최 퍼포먼스 '눈길'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 8일 경주화랑마을에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호준 부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강사, 수강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회는 5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퍼포먼스, 15개 팀 프로그램 발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파랑관에서 다이어트 및 라인댄스, 하모니카, 퓨전장구, 통기타, 고고장구, 오카리나 등 지난 1년간 갖고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특히 APEC 성공개최를 위해 펼쳐진 대형 통통 및 깃발 퍼포먼스는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의 의미를 알리고 시민의 지력을 결집하기에 충분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천아트(월성동), 어반스케이치(불국동, 월성동, 중부

동), 민화(선도동, 건천읍), 캘리그래피(황성동)의 작품을 전시해 수준급 볼거리를 제공했다.

화랑관 1층 로비에서는 '2025 APEC KOREA 경주' 포토존을 마련해 APEC 경주유치를 기념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영부 연합회장은 "오늘 발표회를 통해 지역 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 삶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자리를 훈훈하게 만들었다"며 "주민자치가 앞으로도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더욱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g0311@naver.com

포항시, 환동해 융합예술 중심도시 '도약'

아트&테크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위한 비전 선포식

포항문화재단은 포항시의 '아트&테크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향한 비전을 담은 선포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날 포항시의 창의, 융합, 혁신의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 및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시의회 의장, 김경재 국회의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화예술 관계자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서는 영남권 유일의 아트&테크의 플랫폼으로 지역의 예술가와 전 세계 융합예술 아티스트들이 교류하며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담아 환동해 융합예술 중심도시 포항의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의 축하 공연으로는 그랜드 로보틱 퍼포먼스 '이아피, 희망이 된다!' 쇼케이스를 공개했다.

'이아피, 희망이 된다!'는 포항문화재단의 특성과 사업으로 포항과 프랑스 작가들의 협업으로 제작한 움직임이 대형 기계예술 작품 '이아피 Iahfy'의 탄생과 의미를 '희망'이라는 주제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구현한 작품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경북도, 환동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거점이 되도록 경북도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포항의 수많은 문화자산의 잠재성을 발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g0311@naver.com

청송로타리 "내 고장 깨끗하게"

회원 30여명, 사과축제장 정화활동

국제로타리 3630지구 청송로타리클럽은 지난날 31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청송사과축제장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회원들은 각자의 생업을 마친 후 축제장 내 버려진 쓰레기 등을 줍고 정화하는 플로킹 활동을 진행했다.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성껏 환경을 정리했다.

청송로타리클럽은 지난 1983년 창립된 이후 '초야의 봉사'라는 기치 아래 65명의 회원이 불우이웃성금 및 장학금 기부, 전통장날 우동봉사, 청송정원 가꾸기, 농촌 일손돕기, 집수리 봉사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범 봉사단체이다.

박종근 회장은 "앞으로도 청송군에서 개최하는 중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지속



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로타리클럽 박종근 회장님과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

을 전하며 청송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청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울릉,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헌신에 감사

울릉군은 지난 6일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남한권 군수, 한종인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조태운 울릉군재향군인회장, 재향군인회 회원 및 보훈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울릉군재향군인회에서는 해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포상,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태운 재향군인회장은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여러 원로 선배님들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위를 위해 향군 본인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재향군인회 회원분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gs1300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 종합이벤트 기획·연출·진행

대표 현 병 희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더블에이치플랜

Mobile : 010-3517-1105

울진군, 미래 원전 산업 도약의 초석 세우다

신한울1·2호기 종합준공, 3·4호기 착공식... 윤 대통령 등 참석 건설 완료까지 연인원 720만명 고용 효과·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신한울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울진군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지역주민, 원전산업 관계자와 원자력 관련 학과 대학생, 원자력마이스티고 학생들을 초청해 신한울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 당시의 약속이 지켜진 현장을 약 3년 만에 다시 찾은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대통령 당선 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평균 30개월이 걸리는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 마침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3·4호기 등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와 국내 SMR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에 충분히 일감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신한울3·4호기 건설은 약 720만명 (APR1400기준) 이상의 연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인 만큼 건설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지역 업체의 직·간접적인 공사 참여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며 단기적 지원으로 특별 지원금으로 건설비에서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책정과 원전 9기 이상의 0.5% 가산이 지원돼 신한울3·4호기 기준 건설비는 약 11조5000억원으로 약 2300억원이 산정된다.

장기적 지원으로는 사업자지원비와 기본지원비, 지역지원시설세가 있으며 사업지지지원비와 기본지원비는 각 전전년도 발생량 kWh 당 0.25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한다. 건설 기간을 포함해 가동 기간 60년간 지원되며 이용률

80% 기준 신한울3·4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해 약 6000억원(사업자 3000억원+기본지원 3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지원시설에는 원전 가동 기간(60년) 납부되는 세금으로 당해발전량 kWh당 1원으로 산정한다. 신한울3·4호기 가동 시 60년간 약 1조1700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복 군수는 "신한울3·4호기 건설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에너지 자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울진군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울진군은 신한울3·4호기 건설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외국인 투자자에 '대구 매력' 적극 홍보

2024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가 대경 행정통합 등 기회요인 어필

대구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Invest Korea Summit 2024)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자 및 외신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대구의 투자 매력' 발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단 초청 대구 산업시찰 △대구시 투자 홍보 및 상담부스 운영 등을 진행했다.

먼저 행사 첫날인 6일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타운홀 미팅' 세션에서는 외신기자, 외국 투자 홍보대사, 외국인 투자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1번지, 원스톱대구'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구경북공항 건설과 투자기업에 다양한 특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새로운 기회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더불어 행사 기간 방한하는 해외 투

자가들과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거쳐 진행된 외국인투자기업 사절단 초청 산업시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참석한 20여명의 투자자와 외신 기자들이 참석해 대구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둘러봤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산업시찰 프로그램은 △대구의 투자환경 소개 △지구형자동차부품진흥원 관제센터 시찰 △브그위너 대구테크센터(DTC) 방문 및 시찰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프로그램의 마무리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동서원에서 한복과 다도문화를 체험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모빌리티 분야 관련 주행사험장, 자율주행 테스트 도로 등 지역 내 잘 갖춰진 인프라,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원스톱 투자지원 등 대구시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난 6일에서 7일 이틀간 진행된 대구시 투자홍보 및 투자상담 부스에서는 북미, 중국, 일본과 유럽 기업을 상대로 외국인 투자 절차, 대구의 주요 투자입지, 5대 미래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안내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청도 농특산물, 美 최대 규모 한인마트와 수출확대 MOU 체결

군수·군의장·관계자 등 뉴욕 방문 연매출 21억달러 기록 'H마트'와 상품 공급·유통망 확보 위해 협력

청도군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미주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마트인 H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H마트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하수 군수, 전종용 군의회 의장, 브라이언 권 시장을 비롯한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청도군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 및 판매 노하우를 활용한 상품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미주지역 청도군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H마트는 권일연 회장이 지난 1982년 설립한 미국 내 최대 한인마트로 미국지역 96점포, 캐나다, 영국 등 해외를 포함해 127점포를 운영 중에 있



다. 연매출 규모는 21억달러를 상회해 한화 기준 약 3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미주지역에는 청도군의 대표 농산물인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등 버섯류를 비롯해 전국 제일

의 씨 없는 뽕은 감 청도반시와 감말랭이를 포함한 감 가공품, 기타 식혜류 등이 수출되고 있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미주 최대규모의 한인마트인 H마트와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도군의 명품

농특산물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판로적으로 기존 수출품목의 불황 확대와 신규 품목 수출로 이어져 농가소득 활성화와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bong00@naver.com

포항, 연말 소비 높여 경제 활성화 '박차'

지역상품권 7%할인, 70만원까지

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카드형(포항사랑카드)·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을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고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카드형(포항사랑카드)·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액은 70만원이며 보유안도는 100만원이다.

시는 연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구매한도액을 70만원으로 유지하고 7% 할인판매로 연말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

제 활성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오전 12시 15분부터 모바일 앱(M#)에서 충전이 시작됐으며 105개소 판매대점과 아이엠뱅크(구.대구은행) ATM기(49개소)·셀프 창구 등에서 영업시간 내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4월 출시된 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은 BC QR 가맹점과 삼성페이 결제나 네이버페이 현장 QR결제가 가능한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착한 가격업소 중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포항사랑카드 결제 시 사용자에게 추가 5% 할인 혜택(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손동현 기자doh0311@naver.com

상주시, 대규모 농산물종합물류시설 건립 추진 '순항'

조속한 부지매입 완료 위해 최선

상주시에는 2개의 공판장(상주농협, 상주원에농협)과 민영도매시장(남문청과)이 있다.

3개소를 모두 합해 1만7880㎡의 부지

면적과 연면적 5919㎡의 협소·노후화된 시설에서 농산물 취급으로 인해 출하차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만만치 않아다.

이를 위해 상주시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상주시 농산물종합물류시설(가

칭)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2년에 걸쳐 완료해 성동동 일원에 대상지를 선정했다.

2023년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해 현재 경북도에 계획제출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으

며 올해 3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위한 협약체결 후 지난달 21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상주시에서는 2025년 기본 및 실시계획을 통해 규모의 구체화 및 조속한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창환 기자changwan12@naver.com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상주, 척수장애인 재활증진 '앞장'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는 지난 7일 '제23회 상주시 척수장애인 정보교환 및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주시 척수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척수장애인협회 회원 및 보호자와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 식전공연과 레크리에이션으로 화합과 어울림의 한마당을 펼쳤다.

한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는 지역 내 척수장애인의 교육·문화·재활지원 및 휠체어수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척수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병길 회장은 "척수장애인 회원 여러분들이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청송, 게이트볼대회 '화합의 장'



청송군은 지난 7일 청송군민운동장 특설경기장에서 '제10회 청송군수기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청송군게이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내 20개 팀,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기량을 겨뤘다.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이어가 참가자들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됐다.

윤경희 군수는 "게이트볼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영주보건, 우수한 재난응급의료 대응력 '입증'

종합훈련대회 도상훈련 최우수

영주시보건소는 지난 5일, 6일 연인 JETI(재난응급의료연수원)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경북도 대표로 참가해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세종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재난응급의료팀이 참가해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중증도 분류, 환자 분산이송, 환자 정보관리까지 재난의료 대응 전 과정을 평가받았다.

또한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설치와 재난안전통신망(PS-LTE) 사용 등 슬기훈련도 진행됐다.

영주시보건소는 신속대응반(보건소장 외 3명), 안동병원 권역재난의



료지원팀(DMAT)(4명), 영주시 소방서(2명) 등 총 10명으로 경북도를 대표해 참가했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경북도 대표로 참가한 대회에서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속적인 재난 대비 훈련과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주교육청, 교권회복 희망 걷기대회 '성료'

공·사립 학교운영위원 모여... 불법찬조금 근절 결의 등 진행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보문호 반길 일원에서 불법찬조금 근절 및 교권회복 희망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석해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다 함께 걸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철 지역협의회장은 "모두 바쁜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공유하는 기회를 얻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대훈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민주적이며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행복한 경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게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하며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와 학



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자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문경새재옛날잡쌀떡·새재당, 지역 발전 '힘'



지난 7일 문경새재옛날잡쌀떡은 성금 200만원을, 새재당은 성금 300만원을 문경시에 기탁했다.

권영길·권오재 대표는 입을 모아 "문경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탁받은 성금 500만원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안동 여성예비군 소대, 무료급식 봉사 '훈훈'



안동시 여성예비군 소대는 지난 6일 요셉의 집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요셉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이날 약 200여명의 어르신에게 따듯

한 음식을 제공, 이와 함께 요셉의 집 내부 청소와 설거지 등 정리 작업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임성중 정작과장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동 정

2025 APEC성공개최추진위 출범식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1일 오후 2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서 열리는 2025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국소본부장 회의 주제·지역현안 논의

주낙영 경주시장은 11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소본부장 회의를 주재해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한다.

수자원공사 영주담지사 업무협약

박남서 영주시장은 1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영주시-한국수자원공사 영주담지사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다.

공공비축미곡 수매장 방문

윤경희 청송군수는 11일 2024년 공공비축미곡 수매장(청송읍 청운농장 외)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간부회의 참석·지역현안 논의

오도창 영양군수는 11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해 각종 지역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엄복현 회장, 상운면에 기부금 전달



봉화군 상운면 후평경로당의 엄복현 회장이 지난 7일 상운면사무소에 들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폐지저금통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폐지저금통은 엄복현 회장의 배우자가 생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모았던 것으로 동전과 지폐 등 총 40여만원이 담겨 있었다.

김동진 면장은 "에기치 못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마음을 써주시는 엄복현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드린다"며 "꼭 필요한 이웃에게 뜻깊게 쓰도록 하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2024 하반기 수강생 모집

경주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운영기간

2024. 8.22(목) - 12.19(목)
매주 목 / 17주
오전반(10~12시), 오후반(19~21시)

수강료

신라문화원 회 원 120,000원
비회원 140,000원
농협 351-1136-1107-13 (신라문화원)

강의장소

오전반 : 서약문화공간 (경주시 서약3길 14)
오후반 : 신라문화원 교육관
(경주시 금성로 254, 축협 2층)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관 : 신라문화원

후원 : 한국수리원가협회 (주)물성원지역본부

No.	날짜	주제	강사
1	8월 22일(목)	신라의 공권(왕성)	김호상 이사장 · 역사고고학연구소 · (재)경신문화재연구원 원장 · (재)진흥문화재연구원 이사장
2	8월 29일(목)	신라의 경(문천)	
3	9월 05일(목)	신라의 신(남산)	
4	9월 12일(목)	신라의 무덤(왕릉)	신용철 관장 · 왕산시립박물관 관장 · 울산박물관 운영위원 · 통도사 분당사 문화재위원
5	9월 19일(목)	조탑경과 불탑	
6	9월 26일(목)	비보사탑과 불탑	차용정 실장 · 불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전 국립경주왕릉연구소 · 불성기초학술연구 TF
7	10월 10일(목)	밀교와 불탑	
8	10월 17일(목)	계단(戒壇)의 구조와 상징	박광연 교수 · 동국대학교 WISE 국사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소장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
9	10월 24일(목)	불국사 1	
10	10월 31일(목)	불국사 2	김규호 교수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11	11월 07일(목)	석굴암 1	
12	11월 14일(목)	석굴암 2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13	11월 21일(목)	전황백사암 <황백사지상층석탑금동사리함>	
14	11월 28일(목)	백률사암 <이차돈순교비>	김규호 교수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15	12월 05일(목)	무장사암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	
16	12월 12일(목)	송복사암 <송복사비>	김규호 교수 · 전, 경주대학교 대학원 원장 · 문화관광산업학과 교수
17	12월 19일(목)	특별강연 : 왕당과 통일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천시 대창면은 지난 7일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기관·단체장 회의인 '목요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2월 초 예정된 대창면 주민자치 교양강좌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의 행사 계획을 알리며 금호대창IC 하이패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의 필요성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제2한민고) 최종 선정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회의 종료 후 대구 군부대 유치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박상우 면장은 "항상 대창면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목요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대창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성주읍, 일회용품 줄이기 '앞장'



성주군 성주읍은 지난 8일 직원들부터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생활 문화가 성주군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일회용품 줄이기'를 시행했다.

현재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이 나날이 늘어나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고 적정 수거와 처리가 되지 않아 다양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이 함께 텀블러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배해석 읍장은 "지속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생활을 통해 깨끗한 성주읍의 이미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직원들부터 시작 된 일회용품 줄이기가 성주읍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의성, 균형발전사업 발굴 노력 '빛난 결과로'

우수사례 시상식·성과발표회 장관 기관 표창 등 수상 쾌거



의성군은 지난 7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하는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 등을 수상했다.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사업수행 주체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성과가 환류돼 각 지역이 열정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마다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의성군의 대표 우수사례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비안만세센터'로 김승우 위원장이 만세센터

운영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고 우수사례의 성공 노하우와 스토리를 각 지역에 전달했다. 또한 비안만세센터의 사례가 의성을 넘어 전국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의성군이 보유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덕일산업 회장, 경주 복지시설 발전 '술선'

안마의자 49대 1억 상당 톡 톡

유기덕 덕일산업(주) 회장이 지난 8일 1억21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49대를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덕일산업은 경기도 평택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지난 1999년에 창립해 현재까지 기술력과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앞세워 국내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기간 기관·단체,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자선활동과 기부, 봉사를 실천해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경주지역 초·중등학교 46곳에 91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도 기탁한 바 있다.

이날 유기덕 회장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매진하는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지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관리 돕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호 센터 이사장은 "이웃들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유기덕 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기탁해 주



신 소중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달해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예천 지역 가족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예천군가족센터는 지난 8일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연탄 나눔은 예천군가족센터 사례관리 대상 중 연탄이 필요한 취약·

위기가족 3가정에 총 1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안동지부장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취약·위기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자충 진보면분회, 속 든든 '건강음료' 기부



청송군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진보면분회에서 지난 6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50만원 상당의 건강음료를 진보면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받은 건강음료는 독거노

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경희 군수는 "해마다 십시일반 귀중한 마음을 모아 주시는 자유총연맹 회원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hanmail.net

칠곡 노인회, 한국대회 '화합의 장'



(사)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는 지난 8일 노인회장기 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박종태 부군수를 비롯한 내빈들과 8개 읍·면·별 선수 및 임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식, 내빈 시무, 본경기 순서로 진행됐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왜관읍 선수단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우승의 영광을 가져갔다.

임의도 군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읍·면 회원들간 서로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실력을 길러 건강히 다시 뛴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상주, 지적민원처리반 '적극 행정'



상주시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의 마지막 일정인 지난 7일 중동면 우물2리 마을회관에서 행복민원과 직원들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시 사에서 현장지적민원서비스를 운영했다.

상주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업무 등 지적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주시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증가 캠페인과 상주시 군부대 유치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직접 현장에서 시행했다.

유현중 행복민원과장은 "2024년 마지막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훌륭히 운영했다. 주민들에게 토지행정 전반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사항 해소에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는 2025년에는 더욱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고향사랑기부제 영주시 사랑을 전해주세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주가 아닌 영주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연 500만원 한도 내) |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 e음(lovegohyang.go.kr), 오프라인: 금융기관 대면접수(NH농협은행) | 기부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 공제),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 답례품 | 농·축·임산물(인삼, 사과, 쌀, 한우), 가공·제조품(홍삼가공식품, 인견제품, 한과, 와인, 부각, 꿀, 장류, 차류, 유제품), 상품권(영주사랑상품권)

지중배·양준모, 강렬한 관현악의 밤으로 초대

경북도 도립교향악단, 협연 펼쳐 12일 저녁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임주섭·구스타프·쇼스타코비치등 탁월한 곡 해석과 세밀한 지휘로 세계 명작의 격조 있는 무대 선사

경북도 도립교향악단이 12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2024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서 경북의 혼을 담은 연주를 선사한다.

지난달부터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교향악 축제 "2024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에 국내외 최정상의 지휘자 및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르며 호평 속에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 도립교향악단은 경북의 혼을 담은 연주로 경북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수많은 작곡가의 작품과 다양한 형태의 공연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지역의 공연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은 유럽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지중배가



객원 지휘를 맡는다. 지중배는 독일 울름 시립극장과 트리어 시립극장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 받았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등을 비롯한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그만의 탁월한 해석과 세밀한 지휘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협연자로는 세계적인 바리톤 양준모가 출연한다. 양준모는 지난 2006년 독일 최고의 콩쿠르인 뮌헨 ARD 국제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실력을 입증하며 세계가 주목

하는 한국의 바리톤으로 입지를 다졌다. 현재는 유럽 전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경북도 도립교향악단은 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내 예술문화발전에 힘쓰고 있는 작곡가 임주섭의 '대구도 관현악을 위한 '한오백년''으로 1부 무대의 문을 연다.

작곡가 임주섭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 후 도독해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제17회 금북문화상, 제41회 대구음악상 본상, 제37회 대한민국 작곡상, 제39회 대한민국 작곡상 등을 수상, 대한민국의 예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 지역 문화 창달을 이끌어 온 임주섭의 창작곡 연주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어 바리톤 양준모와 함께 구스타프 말러의 연가곡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를 연주한다. 곡은 먼저 떠나보낸 두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교향곡으로 약장마다 가사가 있어 흡사 가곡과 같은 양상을 띤다.

단순히 자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죽음과 삶,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이고 심오한 여정을 담아낸 음악을 경북도 도립교향악단의 탁월한 해석력과 양

준모의 강렬하고도 격조 있는 음색으로 강력한 호소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곡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쇼스타코비치의 '전쟁 교향곡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교향곡 8번을 선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43년 당시의 환경과 전쟁의 상처, 내면 심리를 담아내 쇼스타코비치가 쓴 교향곡 중 가장 이롭고 비극적인 작품이라 평가받지만 머지않아 전쟁이 끝나리라는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여운을 남긴 채 연주가 마무리된다.

한편 공연 한 시간 전 김성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기획팀장 진행으로 2024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의 부대행사 '비포 더 콘서트'를 개최해 공연과 관련한 강연을 진행한다.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곡에 대한 정보, 배경과 작곡가에 대한 해설을 통해 관객들의 관람을 돕고 깊이 있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임주섭 작곡가도 행사에 참여해 이날 연주되는 창작곡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 누리집(daeguconcerthouse.or.kr)과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 1661-2431)에서 구입 가능하다. 초등학생(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그 시절 '개콘 어벤져스' 군위에 상륙 레벨업 버라이어티 개그쇼 '쇼그맨 2'

26일 오후 7시 삼국유사문화회관 개그·미술·노래·댄스 등 구성 풍성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이달의 기획공연으로 다섯 명의 코미디언이 펼치는 버라이어티 개그쇼 '쇼그맨 2'가 오는 26일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이번 '쇼그맨 2' 공연은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쇼그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KBS '개그콘서트' 전성기를 함께한 주역 박성호·김원효, 웃기는 몸담 개그맨 이종훈,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MBC '트로트의 민족' 최종 3위에 입상한 김재욱,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정범공 등이 출연한다.

'쇼그맨 2'는 개그 경력 70년이 넘는 베테랑 개그맨들의 개성과 끼가 넘치는 새로운 내용의 버라이어티 공연으로 개그, 마술, 노래, 연기, 댄스 등 다양하게 구성해 남녀노소 관계없이 공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웃음을 선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누리집(www.gunwi.go.kr) 또는 전화 (054-380-72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선비가 읊은 영양의 절경을 한 권에 담아

산촌생활박물관 개관 18주년 자연·인문 한시 번역집 발간

영양군 산촌생활박물관은 개관 제18주년을 기념해 영양을 돌아보고 읊은 한시를 번역한 '선비가 읊은 영양의 산수시 I'을 발간했다. 개관 제18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자연 및 인문 경관을 읊은 선비들의 한시(漢詩)를 번역해 지난 달 30일 '선비가 읊은 영양의 산수시 I'을 발간했다.

박물관은 개관 이후부터 지역문화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해마다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선비들의 한시를 통해 조선시대 영양 지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산수시(山水詩)는 선비들의 눈에 비친 영양의 자연과 인문적 인식을 담은 작품으로 단편도 있지만 흔히 팔경(八景) 혹은 구경(九景) 등으로 연작시(連作詩)가 대표적이다. 영양의 산수시 1집에서는 임난공신인 학봉 김성일 선생이 읊은 '청계정팔경(靑溪亭八景)'을 비롯해서 19세기 말까지 선비들이 읊은 연작시 12편이 1차로 번역돼 실렸다.

오도창 군수는 "산수시는 생태관광을 지향하는 영양을 알리고 소개할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지역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판물은 발간 수량이 많지 않아 교육 및 학술 기관(단체)만 제한적으로 배부되며 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yyg.go.kr/museum)의 소장자료/발행자료에서 전자파일(PDF)로 볼 수 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천년고도 경주서 日 다도의 정수 맛보다

한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열린 "2024 경주재팬윅"의 마지막 행사인 '일본 다도 우라센케 시연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연회는 10일 경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도서관에서 총 2회 진행됐으며 이날 많은 자원자와 내빈들 참석해 일본 다도의 3대 유파 중 하나인 '우라센케(裏千家)'를 중심으로 다도 문화를 체험했다.

화식 다다미 방에서 진행된 이날 시연회에서는 기립자세부터 앉는 방법, 인사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법의 아름다움을 알렸으며 초보자들을 위한 입식 수업도 준비돼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법과 정좌가 어려운 참가자에게 맞는 방법으로도 진행, 일본 예법의 전통성을 더했다. 다도 수업 수료 시 콘티지안 우라센케가 발행하는 허장과 이력서에 기재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공했다.

다도 수업을 지도한 이종환 나가사키 부산부소장과 정귀순 선생은 재일교포 3세이며 다도 문화를 20년에서 50년 가까이 배운 베테랑으로 현대 사회나 가정, 교육 현장에서 잃어가고 있는 전통을 계승하고 옛 풍습이나 문화 등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다.

정귀순 선생은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가져주고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기뻐다"며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이종환 나가사키부산협회 부소장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일본 다도를 시연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일 간 교류가 많아져 옛 일본 전통 문화가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구미시립도서관 '작가 한강 특별전' 활짝

노벨문학상은 지난 1901년 시작된 이후 인류에 큰 문화적 기여를 한 작가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한강 작가의 이번 수상은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제입증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후 구미 지역 내 모든 도서관에서 그의 저서들이 대출과 예약이 완료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미시립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집중 조명할 수 있는 특별 전시 코너를 마련하고 작품 속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해 보는 체험코너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작품을 천천히 음미하며 깊이 있는 슬로우 리딩 방식의 '한강 작품 제대로 읽기'와 작가의 문체와 작품 세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하는 '비

평적 분석하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이선임 관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도서관에서도 시민들이 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칼럼

정시 다군 모집 확대... 수학·탐구 지정과목 폐지

오종운
총로학원 평가이사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오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다군 선발이 전년도 5개 교에서 11개 교로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교가 올해 다군 모집을 신설하면서 모집인원이 2364명으로 늘었다. 15개 대학 전체 정시 모집인원의 12.0% 규모다. 가군 모집인원은 고려대, 연세대 등 12개 교 9114명(정시 모집인원의 46.4%), 나군 모집인원은 서울대, 서강대 등 14개 교 8183명(정시 모집인원의 41.6%) 등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서는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탐구영역 지정과목을 폐지했다. 인문계열 학생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확률과통계, 사회탐구 응시자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모집 계열별 특징도 강화됐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등에서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사회탐구,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국한해 동국대는 수학(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이화여대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서울대, 홍익대 자연계열은 수학(미적분·기하) 및 탐구영역(과학탐구) 지정과목이 유지된다. 고려대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1·2는 수학 미적분·기하가 지정 과목이다.

대학별 모집요강을 보면 서울대는 나군에서 일반전형(1단계 수능 80, 교과평가 20)으로 1194명,

지역균형전형(수능 60, 교과평가 40)으로 146명을 모집한다. 무전공 학부대학(광역) 모집을 신설해 일반전형으로 36명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다군에서 무전공 학부대학을 신설해 일반전형 18명, 교과우수전형 18명을 모집한다.

가군에서는 일반전형 1093명, 교과우수전형 494명을 모집한다. 가군에서는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해 일반전형 26명, 교과우수전형 12명을 선발하고 공과대학 광역 모집을 신설해 교과우수전형으로 32명을 선발한다. 연세대는 가군 단과대(무전공) 모집에서 상계열로 70명, 생명과학부 20명을 신설해 선발한다. 전년과 달리 생활과학대와 간호학과는 통합 계열로 모집한다.

수능 반영 방법에서는 자연계열에서 수학·탐구영역 지정 과목 제한이 폐지됐다.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사회탐구,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문계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국어·탐구영역 반영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국어 200→300, 탐구 100→200) 성균관대는 인문·자연계열 수능 점수 산출에서 유형A와 유형B 중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다군은 탐구영역 상위 1과목을 반영한다.

무전공 자유전공계열은 가군에서 110명을 모집한다. 다군 모집이 확대돼 글로벌경영학과(44명),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11명), 양자정보공학과(신설, 10명)도 모집한다.

영어 영역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영어 난이도를 반영한 등급별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전년도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은 132점, 3등급 129점, 4등급 103점 등으로 반영했다.

한양대(서울)는 무전공 한양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해 다군에서 60명을 선발한다. 계열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인문·상경은 전년 대비 국어 반영 비율이 5%p 증가하고 자연은 수학·탐구 지정과목 제한이 폐지되며 수학 반영 비율이 5%p 증가했다.

서강대는 다군 모집을 신설해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 47명, AI기반자유전공학부 35명을 모집한다. 이화여대는 가군이 사범계열 초등교육, 조

형예술대학 등 286명, 나군은 인문(통합선발) 174명, 자연(통합선발) 149명, 의예과, 약학 등 798명, 다군(신설)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인문 22명, 자연 48명을 모집한다.

건국대는 무전공 KU자유전공학부 60명을 가군에서 모집하고, 동국대는 열린전공학부를 다군에서 인문 69명, 자연 60명 모집한다. 숙명여대는 자유전공학부를 나군에서 303명 모집하고 가군은 전공 모집단위별로 선발한다. 경희대는 무전공 모집단위로 서울캠퍼스가 자율전공학부(85명, 수능 반영은 사회계열), 국제캠퍼스가 자유전공학부(54명, 수능 반영은 자연계열)로 가군에서 선발한다. 서울시립대는 무전공학부인 자유전공학부를 가군에서 인문 16명, 자연 16명 모집한다. 다군 모집을 신설해 융합응용화학부 8명 등 15명을 모집한다.

한국의대는 무전공 자유전공학부(서울 42, 글로벌 83)를 다군에서 선발한다. 단과대 통합 모집으로는 서울캠퍼스가 나군에서 영어대학 15명, 중국학대학 8명, 일본학대학 4명, 사회과학대학 14명, 상경대학 12명을 모집한다. 글로벌캠퍼스 역시 나군에서 경상대학 8명, 자연과학대학 22명, Culture&Technology융합대학 13명, AI융합대학 9명을 선발한다. 중앙대는 다군에서 경영학전공 210명, 창의ICT공대 150명, 소프트웨어학부 84명 등 444명을 선발한다. 예술대학 가운데 나군 영화전공 22명, 가군 사진전공 23명 등은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점이 특징이다.

오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대학별 전형 방법 또는 모집군 변화, 신설 전형 및 모집단위 등에 대비해 자신이 받게 될 수능 영역별 성적의 유효성을 고려해 지원한다. 모집군별로는 선발 인원이 많은 가군 또는 나군에 적정 및 안정 지원 대학을 설정하고 다군도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의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무전공 전체 모집단위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해당 대학의 인문·자연 통합 계열 평균 합격선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뉴스1

사설

트럼프 귀환, 내년 성장률 줄하향 예고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주요 기관의 연간 전망치 하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재현될 경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를 밑돌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대(對)미 수출 등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칠 시차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오는 12월과 28일 하반기 경제전망 및 수경 경제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두 기관이 이날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 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KDI와 한은은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5%, 2.4%를 제시한 바 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 우리 경제가 0.1% 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8월에 발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10~12월)에만 1.2% 성장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KDI 관계자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의 주요 투자은행(IB)의 연이은 전망치 하향 조정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는 요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골드만삭스 등 주요 IB 8곳의 우리나라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지난 9월 말 기준 2.5%에서 10월 말 2.3%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이로써 IB 8곳의 성장률 전망은 지난 6월 말 2.7%에서 7월 말 2.5%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말 또 한번 내리게 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진 점도 우리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수출이 핵심 동력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 대중국 규제 등을 강행할 경우 무역수지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2%대 초반에 형성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정부·KDI 각 2.1%,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 2.2%) 달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내놓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차 관세 전쟁’을 펼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압력이 최소 0.46%p에서 최대 1.14%p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대미 무역수지가 늘는 상황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1기 때와 같이 무역수지 흑자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다”며 “또 트럼프의 특징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따라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칠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하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시점에서 트럼프발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관세정책, 미중 무역 갈등 등 우리 경제의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강달러 압력 등이 국내 경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기고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이병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해마다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세계 각지에서 유엔 평화유지와 관련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날이다. 이날은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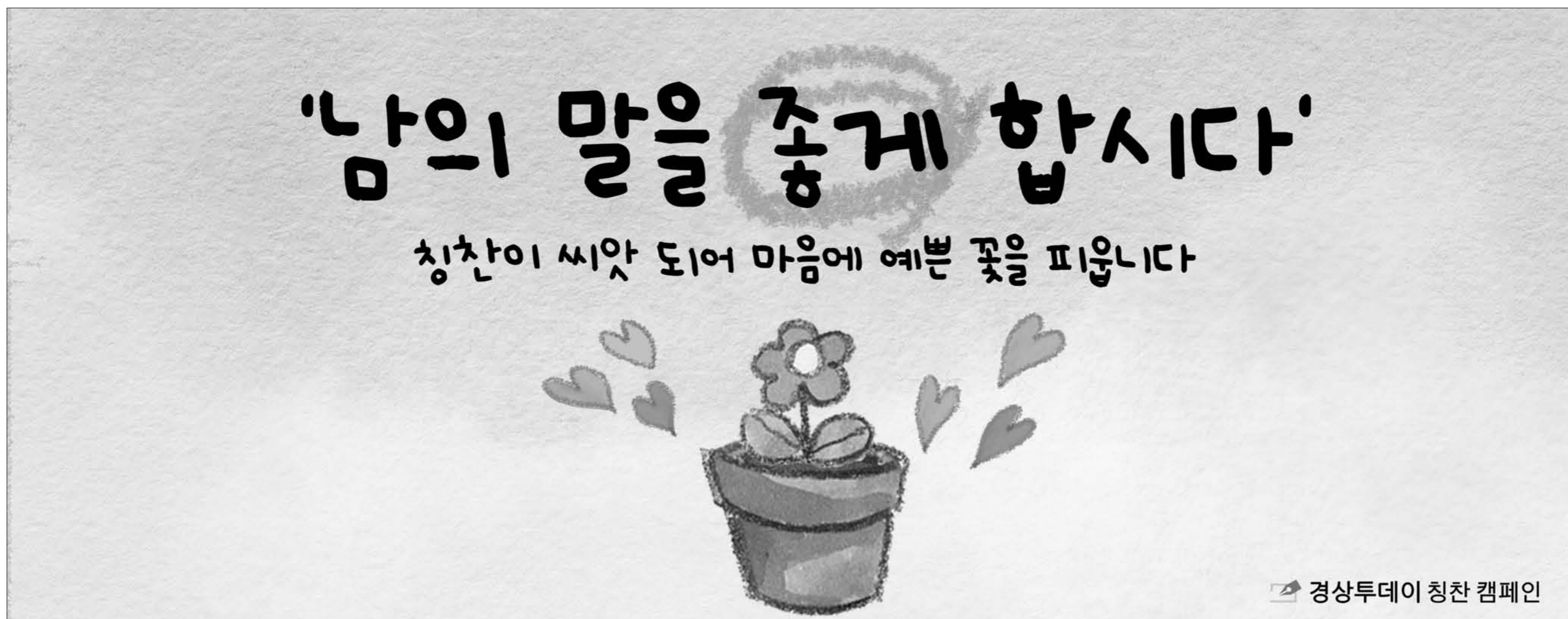
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특별한 날이다. 해마다 부산 UN공원에서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 정부기념식이 거행된다. 올해에는 6·25 전쟁 영웅과 그 유족 63명을 초청해 국제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갖는다.

유엔은 지난 1948년부터 평화유지 작전을 시작해 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토대가 됐다. 그들은 단순히 군복을 입은 전사들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운 평화의 수호자들이다. 우리는 이날을 통해 그들의 업적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전쟁과 갈등은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해가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유엔참전용사들은 이러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경영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월성중·경주정보고 총동창회

회장배 동문골프대회

2024.11.12(화) 12:00

시상식 | 19:00

장소 | 경주 신라CC



대회장 이 승 협



주최

월성중, 경주정보(상업)고 총동창회

주관

수송골프회